

천체화학의 세계 연구동향 및 IAU Symposium 197의 국내 개최

민영철

천문대

“천체화학” 분야는 성간 분자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진 193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간 분자들은 우리 태양계의 혜성들로부터 가장 큰 적색이동을 갖는 외부은하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천체에서 발견되고 있다. 분자들은 이러한 지역의 물리적 구조와 역학적 특성을 탐지하는 뛰어난 추적자로서, 그리고 나아가 물리적 상태를 결정짓는 주요 구성 성분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천체화학은 매우 여러 분야에 걸치는 연구주제로서 은하계들, 별, 행성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실험실에서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최근 전파와 적외선 등 쏠-파장 영역에서 지상과 인공위성을 이용한 관측이 크게 발전하면서 천체화학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천체화학과 관련된 국제 심포지움인 IAU Symp. 197: 'Astrochemistry: From Molecular Clouds to Planetary Systems' 가 1999년 8월 23일에서 8월 27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의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심포지움은 우주의 화학적 구조 및 진화에 대하여 최신의 정보를 발표 교환하는 자리로 특히 최근에 발사된 인공위성들의 결과가 중요한 토픽의 하나이다. 이번 심포지움은 국내의 천문학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국제 학술교류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